

2023년 01월 1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편 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37(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15장 1~16절(구약p.775)

1. 다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지혜로운 자가 어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4.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6. 너를 정죄한 것을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7.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8.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9.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10.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12.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13.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14.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5.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 말씀선포 / 변론에서 금해야 할 것들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내 생각은 맞고 너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다툼이 있고, 이러한 다툼과 허영은 결국 교만의 산물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타인과의 변론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열하고 잘못된 방법까지도 사용합니다. 욥이 세 친구의 권고를 귀담아듣지 않자, 엘리바스는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를 놀려 이겨서 말문을 막기 위해 더 강한 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는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알고, 겸손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욥의 진술을 듣고 화가 나 욥을 정죄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는 욥의 진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헛된 지식이고, 어리석은 자의 대답이라고 비하합니다. 또한 욥의 진술 자체가 욥을 정죄한다고 단언합니다. 엘리바스는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욥을 악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악행입니다. 성경은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음을 강조합니다(유1:9). 야고보 사도 또한 성도들에게 서로를 비방함으로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착각하지 말 것을 교훈했습니다(약4:11). 예수님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 하셨습니다(마7:1~2). 때문에 성도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함으로 지체를 향한 권면이나 가르침이 책망이나 훈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연륜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라도 되느냐고 추궁합니다. 본문 7~10절입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들 중에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흰 사람도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인생의 선배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

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나이 많음을 내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미숙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인생의 연륜은 비루한 것으로 결코 자랑할 바가 못 됨을 알고 나이나 연륜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지식을 서로 나누고 배워야 합니다.

3.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본문 11~16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닫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욕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도용합니다. 욕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입을 놀린다고 책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악인을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욕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악행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품고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정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믿음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56(통509)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 폐 회 / 주기도문